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94)(11/25/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5 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 4 절

마 5:40-42 -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눅 19:8 -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지만,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이 계신 분, 모든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신 분 안에서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시자, 모든 선한 것들의 원천이신 분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흔히 한계를 알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올라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무거운 짐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수고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려 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핑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앞드러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 이루어 냅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 중의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전 13:5 -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 . . 욕심과 집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얽매는 것이다. 나의 이기적 욕심과 정욕과 갈망을 추구하고 얻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그것들에 구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악된 인간은 언제나 욕심과 정욕과 갈망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감싸 쥐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손을 펴게 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5:40-42 -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바로 그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내어 주심으로 인해 얻는 자유이기에, 우리도 내어 줄 때 우리 스스로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삭개오의 반응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을 내어 놓는 것이었다. 눅 19:8 -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삭개오는 돈을 착취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움켜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가 그 돈을 움켜 쥐므로 스스로 속박되고 고통 당했다는 것이다. 돈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움켜쥐었던 돈을 내어 놓았다. 이것은 삭개오가 경험한 영적 자유를 드러낸다. 삭개오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자신의 손, 마음, 영혼을 사람들을 향하여 풀어 놓게 되었다. 풀어 놓는 삭개오의 모습은 주 안에서 자유한 모습을 상징한다. 그렇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유하다.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변함없으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약속 받았으며, 자녀에게 보장된 모든 복과 은혜를 유업을 얻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고 집착할 이유도, 매일 이유도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했다. **히 11:16 - 그들이 이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듦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 때문이다. 성도들은 험한 인생의 여정 중에 수많은 넘기 어려운 수많은 장애물과 장벽들을 경험함으로 갇힌 느낌, 막힌 마음, 구속감을 가짐으로 힘들어 한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담들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이다. **고후 10:4-5 -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빌 4:13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복의 약속,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내전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에서 철수하시는 이기형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며, 에티오피아가 하루 속히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3. 펜데믹의 혼란 속에 경제적 그리고 의료적 사각 지대에 놓여 고통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길을 찾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